

햇볕 쬐면 예방?...코로나 가짜 권고안 주의보

의사협회 포스터 제작 배포
“대부분 의학적 근거 없는 내용
불안감 키워 피해” 주의 당부

#. 뜨거운 물을 자주 마시고 해를 쬐면 예방이 된다.
#. 컵물이나 객담이 있는 감기나 폐렴은 코로나바이러스가 아니다.
#. 바이러스 크기가 큰 편이라 보통 마스크로 걸러진다.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한의사협회(의협) 권고사항’이라는 이름으로 퍼지고 있는 잘못된 코로나19 관련 정보들이다.

대한의사협회가 잘못된 내용의 확산을 막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코로나19 관련 가짜 권고안 주의하세요’라는 제목의 포스터를 제작·배포하는 등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의협 김대하 홍보이사 겸 의무이사는 “컵물이나 가래가 있으면 코로나19 감염이 아니라고 단언하고 바이러스가 열에 약하므로 뜨거운 물을 마시라는 등 의학적 근거가 없는 내용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코로나19 감염의 증상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코가 막히는 증상이 보통과 다르고 물에 빠지는 것처럼 느껴지면 의사를 봐야 한다고 하는 가짜 권고안의 내용을 일반인들은 마치 특별한 느낌이 없으면 괜찮다는 식으로 오인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같은 허위 권고안에는 용어 옆에 영문과 함께 ‘식별법’, ‘코로나바이러스’,

◇일반국민 행동수칙

- 1 물과 비누로 꼼꼼히 자주 손씻기
- 2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 3 기침할 때 옷소매로 가리고 하기
- 4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
- 6 노인·임산부·만성질환자 등은 외출 시 마스크 착용하기

‘감염됐을 때의 증세’, ‘예방’ 등 형식을 갖추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 편집에 일관성이 없고 문법이 틀리거나 오타가 있다고 의협은 전했다.

김 이사는 “지역사회감염이 본격화되면 서 국민의 불안이 커지는 시점에서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전문가 단체의 공식 권고인 양 알려지면 국민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호흡기 증상시 행동수칙

- 1 마스크 착용하기
- 2 외출 자제하고 집에서 하루 이틀 경과를 관찰하며 휴식 취하기
- 3 의료기관 방문 시 자차 이용
- 4 진료 전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질환자 접촉 여부 알리기
- 5 의료인과 방역당국의 권고 잘 따르기
- 6 경미한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있을 시 병원·응급실 방문 자제하고 관할 보건소·120콜센터 또는 1339 콜센터에 상담하기

의협은 코로나19 관련 특별 홈페이지(<http://coronafact.org/>) 및 ‘KMA 코로나팩트’(안드로이드 앱)를 통해 감염병 발병현황과 관련 뉴스 및 바이러스의 예방을 위해 도움이 되는 각종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채희중 기자 chae@

구내식당 휴무·예산 조기집행
전남교육청 코로나19 타격
얼어붙은 지역경제 돕기 나서

전남도교육청이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전남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돕고 위축된 소비심리를 되살리기 위해 구내식당 주 1회 휴무, 예산 조기집행 등의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인근 음식점 업주들과 교통을 분담한다는 의미에서 분정 구내식당 운영을 매주 1회(수요일) 중단하기로 했다.

전남교육청 구내식당은 평소 600여명의 직원이 이용하고 있으며, 주 1회 휴무제가 실시되면 월 2400만원이 지역상권 매출로 이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근 음식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교육청은 이와 함께 교직원 맞춤형 복지 예산 244억원 중 70%에 해당하는 170억원도 3월말까지 사용하도록 권장키로 했다. 맞춤형 복지비는 외식, 의류, 도서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어 지역 상가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장석웅 전남교육감은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로 소비심리가 얼어붙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지역상권 이용으로 지역경제가 조금이나마 나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코로나19 출입 통제 학교 어린이 출입 무방비 23일 오후 코로나19 방역으로 출입이 통제된 광주시 남구 진월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인근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이는 학생들이 공놀이를 하며 뛰어 놀고 있다. 진월초는 126번 확진자의 아내가 근무하는 곳으로 시교육청은 해당학교에 대해 3월 6일까지 폐쇄 수준의 휴업 명령을 내렸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담양군 전직원 해외연수 추진 전면 중단

‘코로나19’ 비상 시국에 전제 공무원 해외연수를 추진(광주일보 21일자 1면)해 비난을 샀던 담양군이 해외연수를 전면 중단키로 했다.

담양군은 지난 21일 ‘코로나19 대응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1억9000만원을 들여 추진하던 ‘국의 선진지 산업시찰’을 전면 중단키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담양군은 공직자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대나무축제가 끝난 뒤 ‘국의 선진지 산업시찰’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전제 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28일까지 산업시찰 추진팀 신청을 받아 100명 가량을 선정할 방침이었다. 시찰 지역은 중국·일본·동남아를 비롯해 미주·유럽·호주 등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전국으로 확산한 데다 지난해 한·일, 마중 무역전쟁 이후 지역경제가 급속히 위축된 상황에서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외유성 해외연수를 시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담양군은 광주에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이날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방역을 강화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공무원 해외연수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최형성 담양군수는 “코로나19 감염 방지에 전 공직자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담양=노영환 기자 nyc@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10 달뜨기 07:42
해질 18:23 달질 18:53

마스크 꼭 쓰세요

기압골 영향으로 가끔 비오는 곳 있겠다.

광주	차차흐려져비	0/17	보성	차차흐려져비	-5/14
목포	차차흐려져비	2/13	순천	차차흐려져비	-1/16
여수	차차흐려져비	4/14	영광	차차흐려져비	0/15
나주	차차흐려져비	-3/17	진도	차차흐려져비	2/14
완도	차차흐려져비	3/14	전주	차차흐려져비	1/16
구례	차차흐려져비	-4/17	군산	차차흐려져비	-1/14
강진	차차흐려져비	-2/15	남원	차차흐려져비	-5/16
해남	차차흐려져비	-2/15	흑산도	차차흐려져비	7/14
장성	차차흐려져비	-3/16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남부	안바다	남~남서	0.5~1.0	남~남서	0.5~1.0
	면바다(북)	남~남서	0.5~1.5	남~남서	0.5~1.5
	면바다(남)	남~남서	0.5~1.5	남~남서	0.5~2.0
남해서부	안바다	남~남서	0.5	남~남서	0.5
	면바다(서)	남~남서	1.0~1.5	남~남서	1.0~2.0
	면바다(동)	남~남서	0.5~1.0	남~남서	0.5~1.5

◇생활지수

감기	매우 높음
뇌졸중	매우 높음
미세먼지	중음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7:58	20:29	02:36	15:16
여수	간조		만조	
	03:30	16:00	10:02	22:01

◇주간 날씨

25(화)	26(수)	27(목)	28(금)	29(토)	3/1(일)	2(월)
☁	☁	☁	☁	☁	☁	☁
11/16	9/15	2/14	4/9	4/12	4/13	3/10

동신대 일자리센터, 광주·전남 유일 4년 연속 ‘우수’

동신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가 4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았다.

23일 동신대에 따르면 대학일자리센터는 ‘2019년 대학일자리센터 연차 성과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를 받아 광주·전남 대학 중 유일하게 지난 2016년부터 4년 연속 최고점을 받았다. 연차성과 평가는 전국의 105개 대학일자리센터를 대상으로 한국고용정보원이 실시하며 우수, 보통, 미흡의 3단계로 평가한다.

이에 따라 동신대 대학일자리센터는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당초 2021년 2월까지였던 사업기간이 2022년 2월까지

1년 연장되는 혜택을 받는다.

이번 평가에서 동신대는 진로 지도와 취업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산업체 연계 현장 실무형 프로그램, 해외 취업프로그램 등 수준별 맞춤형 진로·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과 지역 청년들의 올바른 진로 지원, 취업 역량 향상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동신대 대학일자리센터는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광주·전남 대학 중 유일하게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하고, 취업지원 분야 우수상인 한국고용정보원장상을 받았다. /채희중 기자 chae@

전남도 농기계 보험료 지원...농가 부담 20% 줄인다

전남도가 도비 33억원을 투입해 농가의 농기계 종합보험료 부담을 20% 줄이기로 했다. 전남도는 올해 농기계 종합보험 농가보험료를 신규 지원해 농업인 보험 가입 확대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농기계 종합보험은 농기계 사고로 인한 농업인의 경제 및 신체적 손해를 보장한 농업정책보험으로 그동안 정부에서

보험료의 50%만 지원해 가입률이 7%로 저조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올해 농기계 보험료 중 도비 등 지방비 지원을 신설, 총 3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50%에서 20% 수준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김형호 기자 khk@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